

송암교회 말씀묵상

- 이 달의 그림 -



《밀레의 만종, 유화, 1857년~1859년 완성》

작가의 어린시절 추억이 담겨있는 ‘만종’은 노을 지는 저녁을 배경으로 ‘한 남자와 여자가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만종의 작가 밀레는 그의 할머니 모습을 연상하여 그린 작품으로, 그 옛날 일하다가도 종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드리는 할머니를 떠올렸다고 한다.

2022년 7월 18일(월)

누가 재판장인가?

찬송 357장

시편 75:7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벧전5:5)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시75:5)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남을 평가하고, 폄하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나요? 아니면, 내가 재판장이 되어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진정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장으로 사람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 질문: 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나요?

* 기도: 주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2022년 7월 19일(화)

“어떤 죽음?”

찬송 449장

삼상 31:6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죽음은 여호와 의 영이 임하였던 초창기의 모습을 볼 때 한 없이 초라합니다. 그의 초라한 죽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천지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향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고자 하는 욕망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의 죽음이 하나님을 떠난 초라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로 살아갑시다.

* 질문: 어떤 죽음을 맞이하시길 원하십니까 ?

* 기도: 주님, 예수 믿는 자로서 나의 죽음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죽음이 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7월 20일(수)

“모든 상황 속에서 ?”

찬송 361장

대상 10:14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역대상10장에 나타난 사울의 죽음은 사무엘상의 저자 보다 더 비극적입니다. 한 집안이 이렇게 추락하여 망하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간주 한 것 이지요. 본문은 사울!, 그 죽음의 이유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을 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백성의 다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던 것 입니다.(시18:43)

* 질문: 지금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 기도: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아멘

2022년 7월 21일(목)

“생명의 열매 맺는 하루”

찬송 435장

로마서 7:1-6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4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과거의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속박할 수 없으며 율법을 따라 사는 삶으로 맺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열매, 즉 율법을 통해 맺는 사망의 열매의 반대인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 권면합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사망의 열매에 가깝거나, 생명의 열매 가깝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오늘 만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내뱉는 한마디의 말, 인사, 작은 손길처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 질문: 생명의 열매를 맺는 행동과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기도: 주님,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아멘.

2022년 7월 22일(금)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간 이유?

찬송 190장

사무엘하 3:1-12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1절)

본문 3장은 사울의 집이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와 달리 다윗의 집은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성경에서 다윗은 아들들을 헤브론에서 낳았다고 말합니다(2절). 그리고 반복해서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라 말해줍니다(5절).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던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손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웠던 곳이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정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위에 세웠습니다. 그에 반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그의 왕권이 빼앗기게 됩니다(대상 10:13,14). 현재 나와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 질문 : 나의 가정을 위해 일순위로 드리는 기도제목은 무엇입니까?

* 기도 : 주님,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저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아멘.

2022년 7월 23일(토)

내 삶의 우선순위는

찬송 325장

누가복음 9:3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열 두 제자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와 함께 여행을 갈 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 등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나 돈,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생존의 조건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조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생존 조건들만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은 이방인들의 삶,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고 누가복음은 증언합니다. 생존 조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니 더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게 공급하십니다. 생존조건만 앞세워 중요한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삶의 우선순위로 놓으시길 바랍니다.

* 질문: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 기도: 주님,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 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7월 24일(주일)

핑계 없는 순종

찬송 285장

열왕기하 5:1-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14절)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신임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신의 저주라 일컫는 나병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집의 여종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한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와 다른 선지자의 말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자신의 나라에는 훨씬 더 좋은 물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 몸을 씻어야 될까?’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손을 흔들며 치료하지 않고, 말만 하다니 도저히 용납이 안돼’ 라고 중얼거리며,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의 충언을 듣고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자 거짓말처럼 나병이 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봅시다!

* 질문: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 기도: 주님,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